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89호 【루게 제24337호】 주제102(2013)년 10월 16일 (수요일)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로씨야 21세기관현악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리설주 동지와 함께 10월 15일 동평양 대극장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로씨야 21세기관현악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기남 동지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의 예술단체, 예술교육기관 창작가, 예술인들, 교원, 학생들, 평양시민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또한 주조 로씨야대사관 성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극장에서 로씨야 21세기관현악단 단장 겸 수석지휘자인 빠벨 오브싼니꼬브와 악단의 행정지배인 나딸리야 이와노브나 세묘노바가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관현악단의 우리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고 손님들과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아버지장군님께서 여러차례나 로씨야

21세기관현악단의 공연을 보아 주시였다고 하시면서 조로 두 나라 친선관계발전에 기여하고있는 관현악단의 공연활동을 평가하시였다.

빠벨 오브싼니꼬브 단장은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자기들의 공연을 보아주시기 위해 나오신데 대하여 악단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되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조로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할 결의를 표명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극장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관람자들은 우렁찬 《만세!》의 환호를 울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조로의교관계설정 65돐에 즈음하여 친선의 정을 안고 우리나라에 온 로씨야 21세기관현악단은 공연무대에 합창과 관현악 글린까작 곡 가극 《루솔란과 류드밀라》를 주제로 한 명곡 묶음, 녀성 독창

《로씨야의 하늘을 날며》, 남성 독창 《오 귀염둥아》, 녀성 독창과 무용 레가르작곡 경가극 《쥬지따》 중에서 《쥬지따의 노래》, 혼성 2중창 《모스크바》, 무반주합창과 남성독창 《넓고넓은 초원에서》, 합창과 관현악 《갈린까》, 《만발하라 나의 대지여》 등 다채로운 종목들을 울렸다.

출연자들은 공연을 통하여 조국에 대한 로씨야인민의 열렬한 사랑과 전통적인 생활풍습, 민족적정서를

높은 예술적형상으로 잘 보여주었다.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공적인 발사로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한것을 축하하여 빠벨 오브싼니꼬브가 창작한 합창과 관현악 《별들을 향하여 앞으로》는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우리 인민들과 친숙해진 배우들이 우리의 사상감정에 맞게 잘 형성한 우리 나라 노래 《불타는 소원》, 《동지애의 노래》가 무대에 올라 공연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였다.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공연이 끝나자 또 다시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장내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며 공연성공을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공연이 끝난 후 관현악단의 지휘성원들을 만나시고 훌륭한 공연을 진행함으로써 우리 인민들을 기쁘게 해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시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로씨야 21세기관현악단 성원들, 평양시민들과 함께 모란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의 합동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10월 15일 우리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로씨야 21세기관현악단 성원들, 평양시민들과 함께 모란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 합동공연 《조선로동당 만세》를 관람하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공연이 끝난 다음 로씨야 21세기관현악단 단장 겸 수석지휘자인 빠벨 오브싼니꼬브와 악단의 행정지배인 나탈리아 이와노브나 세묘노바를 다시 만나주시였다.

빠벨 오브싼니꼬브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로씨야 21세기관현악단의 공연을 보여주신 데 이어 자기들을 부르시여 모란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의 합동공연을 함께 관람해주시였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며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최룡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기남동지와 로씨야 21세기관현악단 단장 겸 수석지휘자인 빠벨 오브싼니꼬브,

악단의 행정지배인 나탈리아 이와노브나 세묘노바가 자리를 함께 하였다.

서곡 《당을 노래하노라》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여성중창 《조국찬가》, 경음악과 노래편곡 《내 운명 지켜준 어머니당이여》, 남성합창 《우리 앞날 밝다》, 여성6중창 《달려가자 미래로》, 기악과 노래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여성독창 《나의 길》, 경음악 《내 삶이 꽃피는 곳》, 여성독창과 방창

《조국과 나》, 현악 4중주 《10월입니다》, 여성독창 《나래치라 선군조선 천리마여》, 여성5중창 《라오르라 우등불아》, 관현악과 남성합창 《우리의 총창우에 평화가 있다》, 여성중창과 합창 《사회주의 지키세》, 혼성합창 《위대한 그 이름은 승리의 기치》, 종곡 《조선로동당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선군조선의 역센

기상을 힘있게 과시한 격동적인 공연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공연이 끝나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러 또다시 터치는 《만세!》의 환호성이 장내를 세차게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손을 저어주시며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그는 모란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의 합동공연을 보면서 최상급의 공연, 박력있고 힘과 기백이 차넘치는 정말 훌륭한 공연이라고 격동된 심정을 누르지 못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두 나라 예술인들이 합동공연도 진행하고 교류도 많이 하여 인류의 문화예술고를 풍부히 하는데 이바지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인민의 행복과 기쁨이 한껏 넘쳐나는 대동강반의 새 모습

## 최상의 수준에서 희한하게 꾸러진 문수물놀이장 준공식 진행

【평양 10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수도 평양에 인민을 위한 기념비적창조물인 문수물놀이장이 세상에 보란듯이 일떠서 준공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인민관, 미래관에 떠받들려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새로 건설된 대규모의 종합적인 물놀이장은 우리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문명하고 행복한 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인민의 문화휴식터이다.

10만 9,000㎡에 달하는 방대한 부지에 건설된 문수물놀이장은 각종 물미끄럼대와 수조들로 꾸러진 야외물놀이장과 종합적인 실내물놀이장, 문수기념회복원, 실내체육관 등 인민들이 사계절 물놀이를 즐기며 휴식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그치지 갖추어져 있다.

평양의 자랑을 더해 주며 일떠선 세상에 보기 드문 문수물놀이장은 인민을 위함이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고 인민의 이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 하는 어머니당이 우리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에게 안겨 주는 또 하나의 은정어린 선물이다.

21세기 문명개화기를 열어 나가는 우리 당의 정책적인 명도밑에 문수물놀이장이 건설됨으로써 우리 인민들에게 종합적인 물놀이장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그처럼 마음써 오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생전의 념원이 빛나게 실현되게 되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발기와 현명한 명도에 의하여 현대적으로 건설된 문수물놀이장 준공식이 15일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준공식장에 모셔져 있었다.

준공식장상공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일심단결》, 《결사옹위》라는 구호와 글발들을 드러운 대형 기구들이 떠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고 쓴 구호판들이 준공식장에 세워져 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김정일에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부강조국건설에 힘차게 펼쳐 나사자!》라는 구호판들이 세워져 있었다.



연설자는 모두다 당의 명도밑에 사회주의문명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인민의 락원을 하루빨리 일떠세우는데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어 김기남동지, 로두철동지와 문수물놀이장건설에 참가한 단위 지휘성원들, 일군들이 준공테이프를 높이고 섰다.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 노래주악이 울리는 속에 문수물놀이장을 리용하게 될 청소년학생, 근로자대표들, 물놀이장을 건설한 군인대표들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겸 평양시당 책임비서 문경덕동지가 준공테이프를 끊었다.

우렁찬 박수소리가 울려 퍼지고 고무풍선들이 날아올라 준공식장상공을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한없이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시고 이 땅위에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위대한 역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하면서 문명국의 주인, 향유자로 참된 삶을 누리자는 크나큰 긍지와 환희에 넘쳐 있었다.

그들은 세상에 자랑할만한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훌륭히 완공된 문수물놀이장의 여러곳을 돌아다니다 돌아와 보았다.

참가자들은 실내물놀이장의 휴에 정중히 모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천연색석교립상을 우러러 인사를 올리며 한평생 인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신 아버지장군님의 불멸의 혁명

박봉주동지, 장정남동지,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문경덕동지, 로두철동지와 당, 무력, 정경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이 군인건설자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과 함께 준공식에 참가하였다.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구 대표와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고있는 해외동포들이 참가하였다.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 무관 부부들과 대사관성원들, 우리 나라에 체류하고있는 외국손님들이 여기에 초청되었다.

준공식은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 노래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인 박봉주동지가 준공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당의 웅대한 구상과 현명한 명도밑에 사회주의문명강국을 지향해나가는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일떠선 문수물놀이장을 준공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아버지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에게 현대적인 물놀이장을 안겨줄 구상을 안으시고 몸소 문수물놀이장건설을 발기하시였으며 그 터전까지 잡아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선군명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건설장을 여러차례 찾으시여 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쳐 끝낼데 대한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아버지장군님의 천연색석교립상을 정중히 모시는 사업으로부터 시공에서 질을 철저히 보장하며 물놀이장의 겨울철보호대책을 세우고 물놀이기체들을 마련해주는 문제와 인민들에 대한 봉사사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할데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시면서 물놀이장건설을 정력적으로 세심히 지도해주시였다.

문수물놀이장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이라면 천만산악도 단숨에 떠옮기는 인민군인들의 결사판철

의 정신과 투쟁기풍이 안아올린 창조물이다.

군인건설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인민사랑의 뜻을 하루빨리 실현하려는 불타는 총정과 일당백의 공격속도로 건축공사와 각종 설비조립을 립체적으로 힘있게 내밀어 방대한 문수물놀이장건설을 불과 9개월동안에 완공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연설자는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념원을 현실로 꽃피우시기 위해 헌신과 로고를 바쳐 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편단심 당을 따라 선군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온 우리 인민들이 세상에서 제일 좋고 훌륭한것을 쓰고살면서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어 인민의 행복도 조국의 무궁한 번영도 있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간직하고 수령결사옹위, 당정책결사판철의 투쟁정신과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마식령수도》창조의 불길을 새차게 지퍼올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문수물놀이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인민에 대한 헌신적봉무정신으로 봉사활동을 잘하고 모든 시설들을 애호관리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당의 인민사랑이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에게 더욱 뜨겁게 가닿도록 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인민군인들은 문수물놀이장건설을 단숨에 해체건 그 정신, 기백으로 강성국가건설의 주요전구마다에서 돌파구를 열어제김으로써 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의 본래를 남김없이 펼쳐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생애와 업적을 가슴뜨겁게 새겨안았다.

홍잡물떼없이 꾸러진 각종 물놀이수조, 한증탕, 샤워실, 운동실, 실내체육관, 편의봉사시설 등을 돌아보면서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인민들을 위해 베푸시는 은덕이 얼마나 뜨겁고 크나큰가를 온몸으로 절감하였다.

그들은 모든 조건이 최상의 수준에서 갖추어진 문수물놀이장에서 마음껏 웃고 떠드는 청소년학생들과 근로자들의 기쁨넘친 모습에서 인민의 리상과 모든 꿈이 실현되고 사회주의부귀영화가 꽃피는 강성국의 래일을 확인하였다.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도 희한한 물놀이장을 돌아보며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인민중시정치아래 사회주의문명국가건설구상이 위대한 현실로 펼쳐지고있는데 대하여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로동당시대 행복의 선경을 펼쳐며 솟아난 문수물놀이장은 절세위인의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역사를 길이 전하며 인민의 랑만넘친 웃음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를 세세년년 울려갈것이다.



# 인민의 행복과 기쁨이 한껏 넘쳐나는 대동강반의 새 모습

## 최상의 수준에서 희한하게 꾸러진 문수물놀이장 준공식 진행





